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 그리고 빌게이츠



이 현 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오늘의 대학생들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학은 중세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에 알맞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왔고 본질적 기능 면에서도 변화되어 왔다. 중세에는 신학, 의학, 법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엘리트 양성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강조해왔다.

현재와 같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창의적 지식기반형 인재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역할에 따른 본질적 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 기능분화의 측면에서나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른 개별 대학차원의 특성화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 한동안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의 이상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너도나도 취업중심형 실용주의 학풍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현재의 모습대로 간다면 셰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도,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창의적 지식정보화사회의 주역인 빌게이츠 같은 인재도 배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359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특성화되

고 다른 모습의 역할수행을 한다면 인문사회나 이공계간의 기초학문과 응용학문간의 조화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학문간 균형발전이나 비교우위의 특성화에 의한 경쟁력도 신장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우리 대학들이 학생 부족과 취약한 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팎으로 구조조정의 요구를 받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특성화이고, 특성화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무조건적인 재정확보를 추구하는 경쟁, 경제원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의 대학이념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지혜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세익스피어 같은 문호를 배출하려는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대학은 19세기 대학에서의 이상만은 아니며 21세기에도 추구해야 할 대학상의 하나이다. 비록 취업 면에서 사회적 수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의 습득 없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고 고급인력의 양성기관이라고 한다면 전공영역이 무엇이든 간에 폭넓은 교양교육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지난 50년을 살펴보았을 때 양적인 팽창은 놀랄만한 수준이어서 '대학보편교육'의 단계로 진입하였지만 내실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양적 팽창의 과정에서 외형 키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학의 설립이념과 추구하는 교육 목표에 따라 특성화나 기능별 역할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백화점식 교육을 탈피하지 못해 왔다.

21세기의 시대적 변화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의 큰 틀 또한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도 속에서 교육체제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의 개혁과제가 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식기반 사회에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효율적인 지식의 웹(knowledge web) 구축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위해 온 정열을 쏟고 있으며, 영

한동안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의 이상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너도나도 취업중심형 실용주의 학풍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현재의 모습대로 간다면 세익스피어와 같은 대문호도,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창의적 지식정보화사회의 주역인 빌게이츠 같은 인재도 배양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중국 등도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학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질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대학간의 기능분화와 특성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특성화와 기능분화는 지역이나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비교우위 전공영역간 역할분담이며, 개별대학 차원에서는 질 높은 경쟁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구축을 위한 해답을 찾고있으

며 그 해답의 하나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떤 교육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시킬 것인가?' 를 고민하는 일이다.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대학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와 관련된다. 외형적 크기와 하드웨

어기는 곧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들도 이제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획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가 그러하듯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 바탕 위에 전적인 자원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 못지 않게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분야라 할지라도 국가가 적극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가치 속에는 셰익스피어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소재와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셰익스피어가 배출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투자와 애정이 그 전제조건인 하나이다. 컴퓨터 관련 부가가치 못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중 몇 개 대학은 사이버세계 속에서도 안위할 수 있는 문학의 고향, 마음의 고향, 인문사회학의 고향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들도 이제 위기와 동시에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가 그러하듯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가르치는 대학교육'에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대학교육'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공급자위주의 대학교육체제를 교육서비스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는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가르치는 대학교육'에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대학교육'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게 획기적인 '교수개발센터', '학습지원센터', '학습개발센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암기형 대학교육에서 고민하며 문제해결을 하려는 대학교육이 될 때 아인슈타인 같은 보물도 발굴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적 인프라 그리고 재정의 풍요로움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근자에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대학 파산론까지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과 무관치 않다. 흔히 21세기 대학을 지칭하여 '잠재적 위기대학(risk university)'으로 부르는 것도 현재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운영상의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세 번째로는 공급자위주의 대학교육체제

를 교육서비스체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즉 '3인 기능' (인간배양, 인력배출,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다. 이 시대는 국내외 사회와 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형 인재의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다운 쓸모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경직된 공급자 편익의 대학교육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감히 '교육서비스' 개념으로 체제를 바꾸어 다

양화, 다원화, 다국화,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다목적 등 '7多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마디로 열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럴 때 실용적인 빌게이츠 같은 인물 배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경쟁력은 이념과 목적 면에서뿐만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면에서 세익스피어, 아인슈타인, 빌게이츠의 3중주가 연주될 때 내실 있는 대학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

투·고·안·내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수필 형식의 글,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대학교육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보 내
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개발부
전화 : 783-3891 팩스 : 783-3645 전자 우편 : infor@kcue.or.kr